KiRi Weekly 2016.9.26.
이슈 분석

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 평가

오승연 연구위원

요약

■ 정부는 최근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긴급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까지로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, 둘째 자녀부터의 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,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「출생아 2만 명 + α 대책」을 발표함. 이번 긴급보완대책은 단기간의 출산율 하락에 주목하여 주로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. 단기적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되면 근본적 대책이 등한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, 출산,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, 주거, 교육 등 보다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■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보완대책으로 「출생아 2만 명 + α 대책」을 발표함.

- 올해 1~5월까지 출생아 수가 18만 2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명 감소했음.
-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① 첫 자녀 장려를 위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, ② 일 · 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보완(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, 근무지 전보 우대제 등), ③ 보육 주거 등에서의 다자녀 우대 강화 등이 제시됨.[1)]

■ 첫 자녀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의료비를 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는데, 지원금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만큼 고소득 계층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.

- 설문조사에 따르면[2)]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고,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.
- 저출산의 이유는 소득계층이나 모(母)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가구의 특성에 따른
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16. 8. 25), "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.".
2) 김은정(2013), 「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」, 『보건복지 issue & focus』, 보건사회연구원.

출산행태를 고려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.

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인데, 애초에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직장문화에서 수당 인상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 짐.

- 육아를 가족의 책임,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 규범과 직장 문화하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권리를 사용하기 어려움.
-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.
  -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선례들은 밴드웨건 효과[3]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.

■ 이번 긴급보완대책과 같이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에 대응한 정책이 반복되게 되면, 장기적 시계를 갖는 근본적 대책이 등한시될 수 있음.

- 「출생아 2만 명 + α 대책」은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이나 우대 제도와 같이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.

■ 안정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혼인, 출산,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일자리, 주거,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-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육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왔으나, 최근 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은 만혼·비혼으로 인한 혼인건수 감소와 자녀 없는 부부가구 증가 등 가족형성 패턴의 변화로 볼 수 있음.
- 만혼·비혼의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등 고용문제,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등이 있음.
- 인구정책[4]의 방점이 출산율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인구조절정책에서 고용과 주거 등 인구대응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 KiRi

3) 어떤 행위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쉽고 빠르게 그 행위나 생각이 전파되는 현상임.
4) 인구정책은 크게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, 인구조절정책으로는 가족정책(출산)과 이민정책이, 인구대응정책으로는 주택, 교육, 고용, 사회보장정책 등이 해당됨.